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실적 기대감 속 빅테크 중심으로 강세

미국 증시 리뷰

14일(월) 미국 증시는 매크로 여건이 안정된 가운데 3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하며 엔비디아, 애플 등 대형 기술주가 상승세를 견인하며 3대지수는 상승 (다우 +0.47%, S&P500 +0.77%, 나스닥 +0.87%)

미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지난 빅컷(50bp 금리 인하) 이후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낮춰야한다고 언급. 또한, 그는 지난 고용보고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고용시장의 견고함을 확인했음에도 최근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가 실망스러웠다는 점에 주목. 이에 다음 11월 FOMC 전에 발표될 인플레이션 및 고용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점진적 통화정책 완화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

한편,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6조 위안의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 등의 재정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지난 12일(토) 중국 재무부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정부가 특수채를 발행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밝혔으나, 실제로 추가 발행할 특별국채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세부 규모에 대한 언급이 부재하자 일각에서는 부양책 규모가 실망스러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중국 정부가 예상 외로 막대한 규모의 재정부양책을 발표할 경우 금융시장 내 위험선호 심리는 재차 높아질 가능성.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국내 수출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9월 수입 물가와 수출 물가는 각각 전월 대비 -2.2%, -2.3% 하락,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에 기인. 수입품목별로는 원재료 -3.4%, 중간재 -2.1%, 자본재 -0.8%, 소비재 -0.7% 하락했고, 광산품이 -4.0% 하락하며 수입물가 하락을 주도.

주요 종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M7 종목 중 아마존(-0.68%)을 제외한 애플(+1.65%), 마이크로소프트(+0.68%), 알파벳(+1.05%), 메타(+0.08%), 테슬라(+0.62%), 엔비디아(+2.43%)는 모두 상승.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은 에너지(-0.1%) 업종을 제외하면, IT(+1.4%), 유트리티(+1.3%), 부동산(+0.7%) 등의 업종은 대체로 상승.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0월 중 예상을 상회했던 9월 CPI와 PPI, 트럼프 당선 불확실성, 연준의 금리 동결 노이즈 등과 같이 매크로와 정치 변수에 직면했음에도, 미국 등 주요국 증시는 순항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이 같은 노이즈와 변동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 증시는 신고가 경신에 따른 레벨 및 속도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례로, 증시의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대표 투자심리인 CNN의 Fear & Greed Index(이동평균, 풋-콜 비율, 신고가/신저가 비율 등 7개 지표를 지수화)가 10월 14일 종가 기준으로 76pt를 기록하며 극단의 탐욕 영역(Extreme Greed index, 75~100pt)에 진입한 상황. 해당 영역에 진입한 것은 올해 5월 초 이후 처음 있는 현상으로, 투자심리가 과열권에 들어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

물론 Fear & Greed index가 극단의 탐욕 영역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내에 가파른 가격 조정이 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성격의 얇은 조정이 출현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 이는 아직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미국 대선 이슈나, 아니면 주중 소매판매 등 경제지표, 기업실적 등을 명분 삼아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중 증시 대응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금융주 호실적 등에 따른 국내 금융주 동반 급등, 반도체주 낙폭과대 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코스피 +1.0%, 코스닥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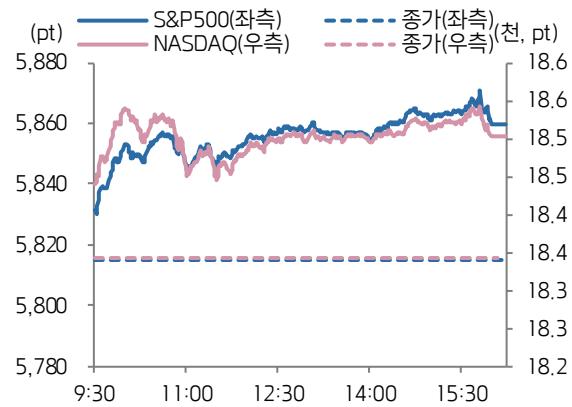
금일에는 월러 연준 이사의 신중한 금리인하 발언에도, OPEC의 수요 하향 조정 등에 따른 유가 급락(-4.9%), 블랙웰 수요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경신한 엔비디아(+2.4%) 포함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강세(+1.8%) 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할 전망.

전일 아시아 증시에서 눈에 띈 것은 상해증합(+2.1%), 심천(+2.7%) 등 중화권 증시가 반등한 가운데, 한국 코스피(+1.0%), 대만(+0.3%), 인도(+0.7%) 등 여타 증시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점임. 최근 출현한 특이 현상이 “중국 증시 강세 → 여타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으로의 자금 이동 → 중국 이외 아시아 증시 약세”였기 때문.

물론 8월 19일 이후로 중국 측에서 외국계 펀드의 자금 흐름 데이터를 중지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중국향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데 한 계점이 존재. 그러나 10월 9일 기준으로 지난 2주동안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서 한국(-5.7억달러), 인도(-53.6억달러), 대만(-13.9억달러) 등 아시아 메이저 국가를 중심으로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아시아 국가에서 이탈한 자금의 상당부분이 중국으로 빠져나갔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 이는 (최근 고점을 찍고 단기 조정을 받고 있긴 해도) 중국 증시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아시아 증시 참여자들의 민감도가 높은 국면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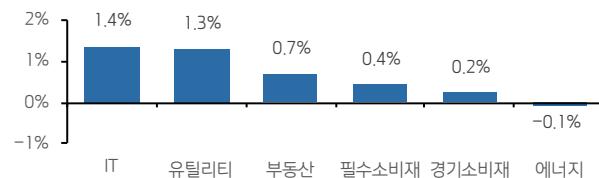
그 가운데 전일 중국 증시 마감 후 발표된 9월 수출(2.4%YoY vs 컨센 6.0%), 수입(0.3%YoY vs 컨센 0.9%)이 쇼크를 기록한 상황. 이 같은 결과는 금일 국내 증시 장중에 “지표 부진으로 중국 부양 기대감 강화”라는 베팅 심리와 “주가가 단기간에 선반영된 상태이므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비중을 조절” 하자는 관망 심리가 혼재되면서, 아시아 전반에 걸쳐 수급 변동성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비.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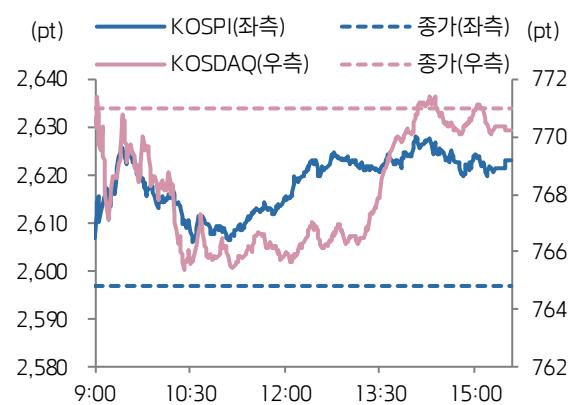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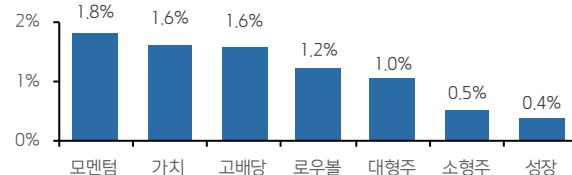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31.30	+1.65%	+20.59%	GM	48.63	+1.59%	+36.48%
마이크로소프트	419.14	+0.68%	+12.07%	일라이릴리	929.51	-0.27%	+60.23%
알파벳	164.96	+1.05%	+18.38%	월마트	80.29	+0.24%	+54.27%
메타	590.42	+0.08%	+67.31%	JP모건	221.48	-0.36%	+33.31%
아마존	187.54	-0.68%	+23.43%	엑손모빌	124.08	+0.38%	+27.29%
테슬라	219.16	+0.62%	-11.8%	세브론	151.78	+0.24%	+5.07%
엔비디아	138.07	+2.43%	+178.87%	제너럴일렉트릭	80.29	+0.2%	+54.3%
브로드컴	182.31	+0.46%	+65.08%	캐터필러	393.95	-2.01%	+34.89%
AMD	165.27	-1.56%	+12.12%	보잉	148.99	-1.34%	-42.84%
마이크론	108.34	+1.33%	+27.33%	넥스트에라	82.91	+1.3%	+39.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623.29	+1.02%	-1.2%	USD/KRW	1,358.60	+0.54%	+5.48%	
코스피200	349.74	+1.24%	-2.3%	달러 지수	103.21	+0.31%	+1.85%	
코스닥	770.26	-0.09%	-11.11%	EUR/USD	1.09	-0.26%	-1.18%	
코스닥150	1,303.64	-0.74%	-6.45%	USD/CNH	7.10	+0.35%	-0.42%	
S&P500	5,859.85	+0.77%	+22.85%	USD/JPY	149.76	+0.42%	+6.18%	
NASDAQ	18,502.69	+0.87%	+23.26%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3,065.22	+0.47%	+14.26%	국고채 3년	2.934	-1.4bp	-21.1bp	
VIX	19.70	-3.71%	+58.23%	국고채 10년	3.084	+0.7bp	-9.1bp	
러셀2000	2,248.64	+0.64%	+10.93%	미국 국채 2년	3.955	+0bp	-29.5bp	
필라. 반도체	5,432.21	+1.8%	+30.1%	미국 국채 10년	4.100	+0bp	+22.1bp	
다우 운송	16,349.51	+0.69%	+2.83%	미국 국채 30년	4.411	+0bp	+38.2bp	
상해종합	3,284.32	+2.07%	+10.4%	독일 국채 10년	2.275	+1bp	+25.1bp	
항셍 H	7,579.94	-0.54%	+31.4%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81,973.05	+0.73%	+13.47%	WTI	73.83	-2.29%	+4.5%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7.46	-2%	+0.55%
Eurostoxx50	5,041.01	+0.74%	+11.49%	금	2,665.60	-0.4%	+23.4%	
MSCI 전세계 지수	857.18	+0.52%	+17.91%	은	31.32	-1.38%	+30.02%	
MSCI DM 지수	3,753.49	+0.58%	+18.44%	구리	440.60	-1.95%	+13.25%	
MSCI EM 지수	1,160.06	+0.04%	+13.32%	BDI	1,809.00	+1.06%	-13.61%	
MSCI 한국 ETF	63.57	+0.28%	-2.99%	옥수수	408.25	-1.8%	-18.92%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85.25	-2.3%	-12.52%
비트코인	65,906.29	+5.04%	+55.04%	대두	996.00	-0.94%	-20.05%	
이더리움	2,621.08	+6.55%	+14.84%	커피	262.05	+3.97%	+39.1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14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기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